교양기초교육연구 제3권 제2호 (2022) pp.77-118
https://doi.org/10.37998/LE.2022.3.2.3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 핵심역량의 제고 방향

조용기* · 정병화**

| 목 차 |

Ⅰ. 서 론
Ⅱ. 현대 사회와 핵심역량교육
Ⅲ. 결 론

국문초록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를 의미한다. 핵심역량교육은 대학교육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핵심역량의 교육은 앞으로의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융복합의 교육방법과 교육과정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핵심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입장만 강조하게 되어 교육의 획일화를 만들어 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역량교육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학의 미래와 학생들의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전의 대학이 추구하던 지식 추구의 방법이 아닌 이를 활용하고, 주어진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교육의 방향에서 핵심역량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대학교 졸업 후의 직업과 관련된 역량교육이 아닌 삶의 질을 고려한 융복합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생애를 포함하는 교육이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

* 제1저자, 대진대학교, c-king-star@hanmail.net
** 교신저자, 대진대학교 교수, wkaki@hanmail.net

은 대학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양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학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융복합적인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통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를 담아내고 있고, 핵심역량 교육을 통해 교양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핵심역량 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교양교육이 갖는 다양함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양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핵심역량 교육의 가치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한 인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핵심역량, 삶의 질, 교양교육, 융복합의 교육, 패러다임

Ⅰ. 서 론

대학에서의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요구를 감당해야하는 전환기에 있다. 여기에 대학의 기능과 목표, 교육의 목적과 본질 등에 대한 성찰과 교양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직업 사회와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업 교육화 되어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교양교육은 사회와 조직에서 갖추어야 할 상식정도로 치부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손동현의 연구는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한 시대적 전환기를 극복해야함을 말하고 있었다.[1] 그는 특정 분야의 지식 습득 방식이 아닌 보편적 지성교육을 통한 교양교육으로 극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하순은 교양교육을 인문학 중심으로 재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2]

1)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2) 차하순, 「전환기에서의 대학교양교육의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그리고 교양교육은 앞으로의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서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시되는 것만큼 교양교육의 재검토 입장에서 독서를 핵심으로 하는 교양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3)]

이러한 연구의 경향에서 역량기반의 교양교육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4)]

무엇보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면에서 대학 교육의 핵심인 것이다. 교양교육의 목적은 보편교육을 통한 자유교육으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찾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유용성을 넘어서 인간됨을 추구하는 인간형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교양교육의 원형인 것이다. 역량교육이 교육부의 궁여지책으로 정책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당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교양교육은 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교육목표로 제시하여 이를 교육과정 안에 설계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여 사회로 배출하는 것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담당할 부분인 것이다.[5)]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자유로운 학문의 장(場)을 제공하여 특정 전공의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다양한 학문의 교양교육 과정을 통해 각 영역의 지식과 지식 습득 방식을 익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되어

---

3)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4) 소경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방식 탐색: 호주의 '뉴 베이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1; 소경희, 이상은, 박정열, 「캐나다 퀘백주 교육과정 개혁 사례 고찰: 역량기반(competency-based)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박민정, 「대학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8;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 BK21 핵심역량연구센터, 『역량기반교육: 새로운 교육학을 위한 서설』, 교육과학사, 2010.

5) 이상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인간연구』, 제37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8, 117-118쪽.

진 능력은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체적인 지적 공감대를 형성[6] 하여 'Education 2030'가 지향하는 웰빙(well-being)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있다.[7]

진화된 'Education 2030'은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OECD의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교교육의 교육적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8] 이후 OECD의 많은 나라들이 21세기형 교육과정 설계 시에 역량교육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지금의 'Education 2030'가 나오게 되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에서 역량기반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국제적 수준의 초기 연구로 평가되며, 이것이 학교교육에 실제로 적용될 때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했다. 그래서 OECD는 2015년 이후부터 역량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Education 2030'이라 불리는 것으로, DeSeCo 2.0이라고 불린다.[9] 새롭게 발표된 'Education 2030'의 내용에는 미래학습의 틀로서 처방이 아닌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핵심역량은 변혁적 역량으로 대체되면서 역량이 추구하는 바가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것으로 DeSeCo 프로젝트가 처음 제시한 성공의 표현을 웰빙(well-being)으로 대체하고 있다.[10] 결국 이는 교육이 다양한 가능성을 담는 틀로서 경제논리를 벗어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연

6) Henry Rosovsky, *The University: An Owner's Manual,* Norton & Company, 1990, pp.127-128; 정철민 · 유재봉,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 『비교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197쪽에서 재인용.
7) OECD,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2018.
8) 소경희,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7, 1-21쪽.
9) OECD, *Progress report of 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Paper presented in OECD education 2030 6th Informal Working Group, EDU/EDPC, 2017, p.16.
10) OECD, 앞의 책, 2018.

계되어 교육과 환경에서 안전을 통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자 하는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11] 것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의 역사적 전통을 담은 문화와 철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술들이어야 하고, 이는 인문학적, 철학적인 역사적 전통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미래 인간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인간이 미래에 새로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발생될 일에 요구되어지는 역량과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될 것이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서 지능과 정신적 회복 탄력성, 학습 능력 등과 같이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12]

이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인 것이다. 더욱이 역량교육이 교육 전반으로 확대 되면서 대학교육의 본질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학의 교양교

11) 이상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인간연구』, 제37권, 인간학연구소, 2018, 117-118쪽.
12) 김지인, 「2018 다보스 포럼, '인간 역량의 혁명(skills revolution)' 제시」, 『브레인』, 제68집, 2018, 66-67쪽.

육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보편적 교육으로 자유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배양하는 교육목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각 대학들 역량교육을 자신의 학교에 맞는 인재상과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맞추어 제각각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각 대학마다 설립이념이 다르면서 교육비젼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설정한 교육목표와 인재상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핵심역량과 교육목표 인재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엿볼 수 있다. OECD에서 말하는 핵심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유기적 복합관계로 특정 전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가 함양해야 하는 보편적 교육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학의 교양교육은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면에서 그 의미를 확대 한다면 시대 변화에 맞는 인간으로 살기 위한 평생 교육으로서의 생애의 적응과 생존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핵심역량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심역량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대 사회와 핵심역량교육

1. 현대사회의 대학교육

고대 이래로 대학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지키면서 '교수', '연구', '봉사'의 세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개방적 사회 기관으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변화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이른다. 여기에 대학교육은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특정 직업을 위한 반복적인 훈련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생활과 직업 변동을 전제로 학습과 자기실현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능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개념, 목적, 내용, 방법, 구조, 교육과정 등을 개혁할 필요가 대두되어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 집단을 양성, 충원하는 구조와 기능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3]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대학의 새로운 사명을 인식하는 토대가 되며, 현재는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인 공적 가치를 정립하고 실천하는 일에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유엔의 〈인간환경선언〉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사명으로 인식하는 토대가 되었고, 현재는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인 공적 가치를 정립하고 실천하는 일에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의 핵심으로 외적으로 대학교육의 팽창 정도와 기간의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경우 대학진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졸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을 경험하고 있었다.

13) 허준·윤창국, 「지속가능발전교육 담론의 평생교육적 함의」, 『평생교육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5.

무엇보다 대학 고등교육의 팽창에 대한 비판은 고급인력의 과다한 양산으로 이어져 대학 졸업자인 고학력자의 청년 실업, 중소기업 등의 생산 인력 부족이라는 인력 수급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노동시장 요구적인 입장과 대학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대학 고등교육의 문제점만으로 제기할 수 없고, 대학의 해결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학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질적 저하라는 비판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대학 자율에 맡긴 교육의 과정들은 주요관심이 대학 입시로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최근의 불거진 취업난의 여파로 인한 대학 입시 이후의 취업의 문제는 많은 시사점을 담아내고 있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와 대학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학 졸업장은 그 가치를 하락시켰고, 대학의 등록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결국 대학교육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내용이 교육의 질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의 관심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가 지식기반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대학에서 핵심역량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14)]

대학교육에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전공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점차 지식기반 사회로의 사회적 변화에서 전공만큼 핵심역량이라는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핵심역량은 대학이 더 이상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적인 학문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 다수의 일반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대중화된 교육기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 되면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통한

14) 박민정, 「대학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8, 137-197쪽; 소경희, 『역량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교양교육의 과제』, 제6회 역량기반교육세미나,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2011, 35-66쪽.

공식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적인 도전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더욱이 학제 간의 융·복합적 사고와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과 전공과 대학 졸업 이후의 직업세계의 연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볼 때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의 질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핵심역량은 대학교육에서의 교육내용 내용과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면서 대학교육에서의 교육적 질 제고라는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전공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회에 나가서 상호작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이 교육에서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대학교육은 시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먼저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대학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교육에 상당한 수준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력인구는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15] 이러한 학력인구의 감소는 고령화, 노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인력 양성 체제 개편으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대학 체제 개편이 필요하게 대두 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구조의 변화이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기술 혁신에 따른 핵심 직무능력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며, 이를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 지능성이 월등해지는 초지능성을 갖고 모든 사물과 시스템이 연결되며 초연결성으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까지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고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로봇공학이나 기계학습 분야는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많은 산업 분야에서 직무역량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신

15) 홍영란, 『OECD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산업 일자리로 대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로 경제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사회 집단이나 사회의 기본 구조가 변화되면서 인류 사회가 구성된 이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으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불평등 요인으로는 직업 불평등, 학력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 학습을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지식사회로의 변화, 학력인구의 감소, 노동시장과의 직무연계성의 중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정보접근의 민주화에 따른 직업 생태계의 변화와 지식 수명 단축 등이 기존의 전통 교육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사회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학교육은 시대적 변화 요구에 교육 목표를 직장과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계발하도록 하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도록 하고, 전통과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16] 이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열린교육체제, 정보사회에 적응할 창의력, 통찰력, 협동력, 학습하는 방법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교사중심 교육에서 학습자중심의 교육체제, ICT에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를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도입, 학습결과 뿐만 아니라 학습문제 해결 과정도 포함하는 교육평가제도, 교육행정에서 책무성을 수반한 자율적 행정을 강조하는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16) 버니 트릴링·찰스 파텔, 『21세기 핵심역량-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한국교육개발원 역, 학지사, 2012. pp.54-55.

2. 역량의 의미와 핵심역량교육

역량이란 상위 개념인 지식·기능·태도를 축적하는 단순한 교육이상의 것으로, 지식·기능·태도가 실질적인 생활에서 종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능력을 말한다.[17] 결국 교육에서의 역량은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지식·태도·기술을 포괄하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18]

포괄적인 개념으로 역량은 competence(s), foundation skills, soft skills, essential skills, generic skills, key competency, life skills, core competence, transferable skills, transversal skill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되어 왔다. 이러한 역량에 대해서 이는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OECD의 생애역량에 기반을 둔 역량에 대한 연구이다. 평생학습의 등장과 함께 OECD와 선진국들의 국가 차원에서 변화하는 앞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있다. 특히 OECD는 1997년부터 역량의 개념과 선별하여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시작하여 핵심역량을 제시하게 된다.[19] 이 프로젝트는 미래 사회가 다양성과 상호의존성, 연계성이 증대되는 사회를 인식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앞으로의 시회 변화에서 개인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이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단순 기술의 습득 이상이 요구되어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역량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17) 이미미, 「호주와 미국의 역사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157-159쪽.
18) 진미석,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3, 105-127쪽.
19)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2005, p.3.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통해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20] 그러면서 여기서 진화한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조한다. 여기서 행위 '행위주체성'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계에 참여하여 사람과 환경 등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21] 이는 미래의 교육이 개인의 웰빙도 추구하고, 사회적 웰빙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행위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 동료, 지역사회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기저에는 '협력적-행위주체성'(co-agency) 개념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가치있는 목표를 향해 나 갈 수 있도록 상호관계를 맺는 학습환경이 구축 되어야 하는 것이다.[22]

특히 핵심역량을 변혁적 역량으로 대체하면서 변혁적 역량의 범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로 나타난다. 새로운 가치 창출은 타인과의 협동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적응, 창의성, 호기심, 열린마음이 역량의 토대가 되고,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는 글로벌적 시각에서 불평등한 환경에 대해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과 논리 그리고 입장의 차이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책임감 갖기는 앞서 언급한 두가지 역량의 전제조건으로 자기규제와 통제로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 책임감 등을 포함한다.[23] 이를 통해 역량교육은 개인의 성공에서 모두의 웰빙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만족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량간의 상호유기적인 관계에서 생애주기적인 보편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역량은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일터에서 근로자들에게 보편

20) OECD, 위의 책, 2005, pp.3-5.
21) OECD, 앞의 책, 2018, p.4.
22) 소경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9, 147쪽.
23) OECD, 앞의 책, 2018, p.6.

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서의 접근을 말한다.[24]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전되면서 직업세계에서 각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협소한 직무기술을 넘어선 어떤 직무나 역할, 직업에서 등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의 자질 · 기술 · 태도 등의 핵심역량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핵심역량의 생애주기에 따른 역량적 접근이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직업기초능력은 개인의 직업과 일터에서의 주변 사람들의 일과 관련된 대인관계 맥락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범위와 대상이 한정되는 개념인 것이다.

셋째, 기업 내 근로자의 자질 향상에 관심을 두는 입장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근로자의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25] 여기서 역량은 개인의 업무성과와 성공적 삶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전통적인 배움의 지식이 가진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용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여 역량의 빙산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빙산 모델에 의하면 지식과 기술은 빙산의 상층부에 있고, 자기개념, 태도, 행동, 특질, 흥미를 비롯한 인성 등의 요소들은 수면 아래에 있으며, 그 보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된 요소들이 잠재의식으로 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면 윗부분에는 기술과 지식에 따른 행동이나 태도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이 핵심역량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취에 대한 열망이 높은 사람들의 반복적인 행동들의 공통적 패턴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규정된 기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 학습 등이 가능하며, 여기에 근로자들의 업무성과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24) 주인중 · 진미석 · 박동열, 『직업기초능력영역선정 및 성취기준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25) David C. McClelland,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973, pp.1-14; David C. McClelland, "Introduction", L. M. Spencer and S. M. Spencer, *Competence at Work,* John Wiley & Sons Inc, 1993.

이후 기업의 교육과 인사관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기업의 성과 차원에서 널리 활용되게 되었다.[26] 역량의 개념을 활용한 기업들은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효과적인 부분을 산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모델을 표본으로 기업의 비전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찾아낸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에 적용하여 인력개발에 적용해 왔다. 사회가 점차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역량 교육은 기업에서 인적 자원의 질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었다. 기업 조직에서의 역량개발은 기업 비즈니스 전략의 주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기업 간 경쟁에서 우위를 갖는 전략적 개발 측면에서 사용되어져 왔다.[27]

OECD DeSeCo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삶을 위한 가치 있는 결과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과 관련된 개개인의 중요한 요구에 부합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역량을 핵심역량이라고 하여 역량범주를 3개로 하고, 여기에 그에 따른 하위범주로 9개 하위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상호작용적으로 도구 사용하기 범주로 언어 · 상징 · 텍스트를 상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와 지식을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기술을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범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대인관계 능력, 팀으로서 협동하고 일하는 능력,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마지막 범주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범주로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활동 능력, 인생계획과 개인적 과제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 개인의 한계와 외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을 주요내용으로 한다.[28] 이는 역량과 기능이라는 모호함에도 개인이 앞으로의 실질적인 삶을 위한 기능

26) 오헌석, 「역량중심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분석」,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35-56쪽.
27) 진미석, 「핵심역량은 교육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핵심역량교육연구』, 제1권 제1호,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016, 6-7쪽.
28) OECD, 앞의 책, 2005, p.6.

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여기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시각과 사회적 시각이 접점을 형성한다는 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성인교육과 기업교육에서 핵심역량교육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핵심역량 개념은 대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핵심역량이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외국의 캐나다, 미국, 핀란드 등의 다수의 국가에서 핵심역량기반이나 역량기반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29)]

이상을 통해 볼 때 역량에 대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역량은 기업 등과 같이 교육영역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 변화에 따른 대응 시도라는 것이다. 즉, 공통적으로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외부의 요구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어떤 능력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질적 문제해결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량은 종합적인 역량임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식, 기술, 태도, 의식 등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용어상으로 현재의 역량이나 핵심역량은 일반적으로도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동일한 용어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혼동이 소지가 발행하기도 한다.[30)]

---

29) 이근호 · 이광호 · 박지만 · 박민정, 『핵심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30) 홍원표 · 이근호 · 이은영,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10,

한국의 경우 핵심역량을 학습될 수 있는 지적능력으로 인성, 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 앞으로의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의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으로 제시 된다.[31]

우리나라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핵심역량강화형으로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선은 교육의 전 방위적인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체제와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변화 시키지 않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또한, 국가의 전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핵심역량이라는 대안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강조는 현재의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삶이 미래의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어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다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핵심역량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국가직무표준(National Competence Skills : NCS) 및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실에서의 실질적 가치를 두는 점에서 기존의 핵심역량의 논의와 같다. 이는 NCS의 공통요소로 직업기초능력을 제시하고 있어 그 구성을 보더라도 핵심역량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일치 되고 있다. NCS에서의 논의는 초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

15쪽.

31) 이근호 · 곽영순 · 이승미 · 최정순,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12, 70쪽.

32) 이찬승,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심각한 문제 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5.

고려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소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교육 관련한 사람들은 이에 따른 교육정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핵심역량의 중요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고등교육의 기능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학의 전통적인 학문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변화하여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능력 등과 같은 부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핵심역량은 대학생핵심역량진단도구(K-CESA :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활용하여 핵심역량의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겠다. 핵심역량의 개념 정립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 측면에서 핵심역량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최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요소 중 하나이다. 정보가 증가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학문중심의 정보 습득보다는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어 지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의 상황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 가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이와 더불어 타인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교육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역량기반교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기관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에 따라 활용 할 수 있는 역량 개념이나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구성요인으로 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고차원적인 인지역량이 강조되고 있어서 분석적 사고력과 종합적 사고력 등이 특히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일반인에 비해 일반적인 학문의 지식과 기술이 높고, 또한 졸업 후의 직업에 대한 직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더 복합적인 일을 맡게 될 확률이 높다는 데에서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심역량 개념의 활용은 교육성과 측정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아울러 고등교육의 책무성과 성찰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으며 이에 따른 대학교육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대학에 대한 기존의 교육평가가 주로 신입학생 위주, 건물, 시설과 같은 외형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나타 날 수 있는 교육의 부가적인 가치 창출 같은 실질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핵심역량 교육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33]

핵심역량 교육으로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학의 교양교육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요구는 대학의 교양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이전의 전통적인 학문중심의 도제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시대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초점[34]을 두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35].

---

33) 진미석 · 손유미 · 주휘정, 「대학생핵심역량진단 체제구축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461-486쪽.

34) Brian L. Zuckerman, Abigail R. Azari, & William E. J. Doane, *Advancing technology-enhanced education: A workshop report,* IDA(Institute for Defense Analyse), 2013.

35) Johnson, L., Adams Becker, S., Cummins, M., Estrada, V., Freeman, A.,

그러므로 최근의 교육 핵심은 학습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주는 것으로[36]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해 단순히 지식과 내용을 습득하는 수동적인 것에 이르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새로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 전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37] 또한, 최근(2023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저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21곳을 확정 했다. 이는 각 대학이 수립한 자율적인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교육여건 등에 적합한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교육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각 대학들은 이러한 교육정책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고, 그 가운데 대학 교육에서의 역량 강화의 교육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 역량교육의 강화는 대학교육과 사회와의 실질적인 괴리감을 줄이고, 대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적응하면서 인간다움의 삶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핵심요소를 말한다.

3. 핵심역량 교육 사례

DeSeCo 이라는 OECD의 프로젝트[38]를 통해 많은 대학들이 삶과 질을 높이고, 이를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키우는데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핵심역량 진단(K-CESA)을

& Ludgate, H., *NMC horizon report: 2013 higher education edition,* New Media Consortium, 2013.

36)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7, 3-27쪽.

37) 교육부, 『대학교육혁신 지원 방안』, 2019.

38) OECD, 앞의 책, 2005, p.6.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39]은 핵심역량의 평가영역의 정의와 평가요소를 담아내어 다양한 문항을 구성하고 역량을 수치로 측정하고자하는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대학들은 다양한 핵심역량을 구성하고 있다.[40]

〈국내대학의 핵심역량 구성〉

대학명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가천대	도전, 창조, 변화
가톨릭대	윤리성, 봉사성, 창의성, 전문성, 국제성
경희대학교	융합적 전문성, 세계시민적 인성, 미래창조역량
대구대	봉사, 자율, 창의, 소통, 협업
동국대	글로벌역량, 인성가치관, 창의적 문제해결력, 사회진출역량
동국대(경주)	자비 실천 역량, 창의적 역량, 도전성취 역량, 글로벌 역량, 직무역량
목원대	교양인, 전문인, 세계인 기독교 신앙인, 봉사자
목포대학교	전공실력, 국제화역량, 바른인성, 창조적 문제해결력
부산대	글로벌 문화역량, 소통역량, 융복합역량, 응용역량, 봉사역량, 인성역량, 기초지식역량, 고등사고역량
부산외대	도전, 융합, 혁신, 나눔, 확장
삼육대	시민의식, 의사소통, 창의지성, 국제화, 실천, 자기주도
서강대	세계평화를 위한 소통, 창의적 융합, 변화를 위한 창의성 실험적 도전
서경대학교	창의적사고 · 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 자기계발역량, 실무 · 융합역량

39) 진미석 · 손유미 · 오석영 · 주휘정, 『2012년도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K-CESA) 구축 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40) 조용기 · 정병화,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22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 11-12쪽.

대학명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서울 시립대	전문성 역량, 통섭 역량, 나눔 역량, 인성 역량
서울여대	실천인, 전문인, 기독교 정신 함양
선문대	인성, 창의, 글로컬, 소통
성균관대	글로벌, 소통, 학문, 인문, 창의, 리더
성신여대	대인관계역량, 글로벌 문화역량, 창의적 융합역량, 실용적 · 지식역량, 자율 · 실천 역량, 사회공헌 역량
순천향대	사회공감, 타인공감, 자기공감, 평생학습, 통섭, 창의적 문제해결, 글로벌,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숭실대	창의역량, 융합역량, 공동체역량, 의사소통역량, 리더십역량, 글로벌역량
아주대학교	글로벌, 의사소통, 융복합 사고, 실천적 창의
연세대	3C(기독교정신(Christianity) 의성(Creativity), 연결성(Connectivity))을 핵심으로 도전, 창의, 융합, 학문, 배려, 소통으로 구성.
영남대학교	인성,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
이화여대	지식탐구역량, 창의융합역량, 문화예술역량, 공존공감역량, 세계시민역량
인하대	자율책임, 의사소통, 창의사고, 지식활용, 공감협동, 글로벌
전북대	실천적 직무역량, 글로벌 파트너십,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민주공공윤리, 창의적 전문지식, 커뮤니티 리더십
제주대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능력, 자원 · 정보 · 기술 활용능력,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중앙대	도전역량, 신뢰역량, 융합역량, 창의역량, 소통역량을 핵심역량으로 개방적 문화인, 실용적 전문인, 자율적 교양인, 실험적 창조인, 실천적 봉사인으로 하위구성
창원대	지역형 리더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실용적 융복합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 역량
청주교대	인성, 창의, 변화리더십
충남대	자기관리, 대인관계, 글로벌, 의사소통, 인성, 창의융합

대학명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충북대학교	공동체의식, 전문성, 글로벌의식, 적극성, 품격, 창의성
한국교원대	공동체인성, 통합지성, 국제역량, 공감·협력소통, 협업실무, 창의혁신

이상에 나타난 국내 각 대학의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 인재상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역량은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평가를 위한 궁여지책이거나 장기적인 역량 함량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냐하면 이러한 핵심역량의 주도는 정부 주도로 일부의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탄력을 받은 것은 대학 평가를 받기위한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심역량을 교육해야 할 교수자가 재교육 받고, 이러한 교육을 전적으로 전담 할 수 있는 핵심역량 관련 교육기관과 관련 연구소가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역량 함양은 전공영역에서는 일부의 역량만을 함양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 대학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문, 사회, 언어 계열의 전공은 구조조정되어 교양과정으로 편입되거나 폐과가 되어 있는 현실에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각 대학교에서는 교양과정의 다양한 영역을 구분해서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실현 가능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면 교양과정에서의 학제 편제를 구성하여 교양을 통한 핵심역량을 충족하고 교육 과정과 내용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역량 함양의 정당성을 갖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는 현재 전 세계가 추구하는 교육이 미래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때 보편적 지식추구를 통해 삶의 질을 추구한다고 볼 때 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핵심역량의 교육은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교양교육이 다양한 학문의 보편적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학생이 졸업 후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생존과 적응 능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교양교육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이 더욱 미래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역량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의미와 제고

핵심역량 교육은 역량에 대한 개념 규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공적 영역의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이 특정한 기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방식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41] 그래서 역량교육은 학교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여[42] 앞으로의 직업을 위한 전제교육으로서의 평가가 진행되었던 것이다.[43] 특히 대학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은 교육평가를 잘 받기 위한 교육개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의 교육평가는 핵심역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교육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에 있어서 핵심역량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대학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협력적 가치를 제공 하여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을 제공하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발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핵심역량 교육을 가치

41) 유성상 · 이재준 · 남유진, 「역량기반 대학교육 담론의 한계 및 대안적 논의 탐색」, 『평생학습사회』, 제11권 제2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2015, 23-24쪽.

42) 김안나 · 김남희 · 김태준 · 이석재 · 정희옥, 『국가수준의 생애능력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 Ⅱ』, 한국교육개발원, 2003.

43) 윤정일 · 김민성 · 윤순경 · 박민정,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제45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2007.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역량의 개념정의 문제이다. 역량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있어서[44] 역량을 주로 인간 개인의 내적 특성과 성과와 같은 의미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역량의 개념이 어떤 효용성을 갖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45] 특히 우리나라 핵심역량 교육은 대학생들의 졸업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직업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본래적인 교육적 가치를 소홀히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46]. 대학에서의 역량기반의 핵심역량 강조는 경쟁력 있는 사회 직업인을 양성하고, 자본주의적인 것과 관련 있는 것이 대학의 교과교육 과정이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47] 이 과정에서 기초과학 분양 등의 생산성을 보이지 않는 인문학 등의 학문들은 교양과로 통·폐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즉,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세계와 자본주의식 논리로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량 중심에 대한 사회의 교육요구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아닌 4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사회적인 외부환경의 요구가 반영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수치 측정을 통한 가능한 행동들을 강요하고 있다.[48]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행동을 미리 예측 하고, 그에 따른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간을 기계로 이해하고 도구화하여 정형화된 판단에 의해 인간

44) 고영준,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역량」, 『교육철학』, 제45권, 한국교육철학회, 2009, 1-26쪽.
45) 오헌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총』, 제47권,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191-213쪽.
46) 최길성, 「역량기반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0, 464-478쪽.
47) 강내희,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문화과학사, 2003.
48) Nigel Norris, "The trouble with competenc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21(3), 1991, pp.331-341.

성에 대한 논의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겠다.

셋째,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의 변화 접근방식은 역량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의 역량에 따른 성공적인 직무수행이 성과로 이어져서 여기에 개인이 절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인 것이다.[49] 또한, 개인의 역량을 통계화하거나 추상화하여 역량에 대한 역동성과 복잡성[50]을 설명하지 못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역량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역량의 관계와 내용 사이에 우선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핵심역량 교육정책은 지금의 현실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구 받는다. 그러면서 역량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서 어떤 역량이 특히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적용하기가 평가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 될 소지가 다분하다. 즉 대학교육에서의 다양한 역량을 실행하는 범주의 특징, 요소, 내용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핵심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이는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 되고 활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향후 결과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량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대학평가를 설정된 항목을 달성 하는 것이 중요 할 뿐이다.

다섯째, 대학교육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구조개혁은 교육의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교육구조개혁은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51] 교육부가 이러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대학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육공급자의 의도로 학과와 학문 분야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대학 자율화가 현재의 대학과 사회의 괴리를 만들었다는 하나의 인식이 작용된

49) Audrey Collin, "Managers' competence: rhetoric, reality and research", *Personnel Review*, 18(6), 1989, pp.20-25.

50) Wim Westera, "Competences in education: a confusion of tongue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1), 2001, pp.75-88.

51)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28일.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교육부가 결국에 요구하는 것은 산학연계 교육(work-based education)의 효율성을 높여서 산업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해 학생들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52] 또한, 학과의 통폐합 또한 대학의 최고 수요자인 학생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주요한 수요자인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 되었다는 현실에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성과로 교육부를 통해 대학 평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입장이 배제되어 대학의 통·폐합이 결정 된다. 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 과학기술 등의 직업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으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윤리와 도덕 문제, 인성의 문제, 삶의 가치의 문제 등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OECD가 제시하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측면에서 학문 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는데 주목 해야 한다.

역량기반의 대학의 핵심역량교육은 그 주체가 되는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사회변화에서 직업사회와 경쟁을 유발하는 사회적 외부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 적응하도록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핵심역량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어디서 어떻게 가능 할 것인가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역량교육으로서의 가치를 담아 낼 수 있는 교양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 그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현재의 학과 평가로 인한 기초학문 분야가 교양관련 기관으로 모이고 있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양교육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학문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양교육으로서의 의미 있는 핵심역량의 방향성을 담아내고 있다 하겠다.

52) 조용기 · 정병화, 앞의 글, 30쪽.

대학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의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다운 인간을 의미한다.[53] 현대의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특정 전공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의 질을 예단하기 어려워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유하여 창조적인 생각을 도출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양교육에서 '교양(敎養)'은 독일어의 번역어로 '비슷한 것을 공작적 또는 예술적으로 모방하거나 모사하여 빚어 지어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54] 이후 인간이나 생명체의 외부적인 형상의 모습을 뜻하게 되고, 모방과 모사에서 정신적인 내용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게 되었다.[55] 더욱이 그리스 로마의 인문주의 전통에서 교양은 인간의 자아를 높게 형성하고 완전케 하는 것으로 이해되던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신(神)의 형상을 인간을 신(神)의 인식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는 인간이 신(神)과 비슷해지도록 하는 신의 소관자로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피조물로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56]

이러한 교양개념은 근대적인 계몽사상을 통해 비로소 정립되어갔다. 여기서 인간은 사회적 이상을 품은 존재로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능력과 자질을 발휘 할 때 여기서 인간은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시기에는 자기형성을 위한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 주위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결국 교양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고유성과 완전한 이성을 구성하는 것이

53) 손동현, 앞의 책, 5쪽.
54) 조용기 · 정병화, 앞의 글, 33쪽.
55) 손동현, 앞의 책, 6쪽.
56) Meister-Eckhart-Brief 2005 des Thüringer Kultusministeriums. Auf der Seite Thüringer Bildungssymposium.

다.[57] 그러므로 교양개념에는 사회적으로 정신적 · 문화적 · 현실생활 능력과 같은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 개인의 자기활동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를 만들기 위한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다양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춘 인간을 만들기 위한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한 역량 교육의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교양개념이 담고 있는 인문학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양교육은 개인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동화되는 교육과정을 통한 최종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으로 실생활에 맞는 보편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육이 교양교육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역량교육인 것이다.

클라프키(Wolfgang Klafki)에게서 교양교육이란 객관적이고 실질적 측면에서 사물의 세계와 정신적 현실이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적 또는 방법적인 의미에서 현실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활동성을 언급하고 있다.[58] 이는 인간이 교육과정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이고, 심성적 가치와 자질이 발현되면서 스스로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실용 가능한 능력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59]

결국 교양교육은 내용면에서 첫째, 신(神)으로부터 부여받은 초월적 가치의 실현능력을 제대로 갖추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영역에 대한 열린 시각과 문화적인 삶을 통해 현실을 인지하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양교육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사랑하

57) Friedrich Paulsen, "Bildung". in W. Rein (Hrsg.): *Encyclopädisches Handbuch der Pädagogik.* 2, Beyer, 1903. pp.658-670.
58) Wolfgang Klafki, *Neue Studien zur Bildungstheorie und Didaktik.: Zeitgemäße und kritisch-konstruktive Didaktik,* Beltz, 1996.
59) Bernward Hoffmann, *Medienpädagogik. Eine Einführung in Theorie und Praxis.* Schöningh, 2003.

는 마음과 남을 돕고자하는 삶의 자세와 관계능력, 정의로움 등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실에 대한 상황 대응능력을 갖추게 하여 생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에 대한 통제의 행동 결정, 판단력, 성취능력, 비판능력, 절충능력, 평화능력, 정치적 능력,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경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과 기술 등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담아내고, 자기관리로서 자신에 대한 육체의 건강과 그에 따른 관리와 도전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생존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60)

이러한 교양교육의 내용은 기능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전인적인존재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양교육은 기본적인 고등교육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교육은 직업교육에만 치중된다고 하겠다. 보편적인 지식과 학문의 교육이 아닌 직업 중심의 전공교육 중심의 대학교육이 현재는 한계를 맞이한 것이고, 교육적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이를 위한 전공교육에 쏟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전공 위주의 교육은 한국도 세계의 지식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현실화 되는 측면에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역량교육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에 있어 이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교육 분야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지식과 보편적 지식을 조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다양화된 사회에서 전문지식이 융복합적으로 서로 조화 될 수 없다면 역량교육이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전문지식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중심에서 교양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적 알고리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교양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교양교육은 교량적 역할로서 역량교육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60) 손동현, 앞의 책, 9-10쪽.

무엇보다 교양교육이 핵심역량으로서의 교육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고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양교육이 담아내는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는 교양교육과정 안에 특정 전공영역이 교양교육과정에 일정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지금의 대학현실이 교양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전통적인 기초학문분야로 종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학문분야를 발굴하여 연구 성과에서 창의적인 학문적 결과물과 서로 이질적인 학문분야들을 횡적으로 다루면서 종과 횡을 통해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필 수 있는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안에 담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문의 개념을 파악하여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적인 변화를 통해 교양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기존의 저학년 위주의 이수체계가 아니라 교양교육으로서의 체계적인 이수과정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교육요구를 충족하고, 교양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61] 즉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심화 과정을 통해 관심의 영역에서 학술적 연구가 반영되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어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양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양관련 행정의 실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꾸준한 지원에 대한 제도 정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양교육 전반을 통제하고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단대와 같은 성격의 전담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관련 있는 연구소와 연구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양교육의 미래적 가치를 담아내는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전담의 정년트랙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다

61) 조용기 · 정병화, 앞의 글, 35쪽.

면 교양교육의 독립기관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의 교양교육 현실은 비정년트랙의 강의전담교수와 초빙교원이 교양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교양교육은 학과 구조조정으로 폐과 교수들이 모이는 곳, 전공 학과 배정을 위해 대기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전공교수와의 연봉 차이로 많은 수업을 담당해야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 업무도 해야 한다.[62] 그리고, 다양한 실적에 대해서도 전공교수 보다 못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63] 그러므로 이를 개선 할 때 교양교육의 위상은 높일 수 있고, 역량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교양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직원을 확보하여 교양교육 교수들의 부수적인 행정적 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 전공 교수와 같은 교양교육 수업의 질적인 개선에 힘쓸 수 있고, 역량강화로서 교양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지금의 교양교육이 역량교육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 될 때 평생교육의 의미를 담아낸다고 하겠다. 사회변화에 대한 꾸준한 학습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교양교육의 방향성은 평생학습을 위한 개인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교양교육은 역량교육으로서 평생의 학습의미를 담아내고 있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으로 교양교육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역량교육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대학교육에서 역량에 관한 논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대학교육의 변

62) 권형진, “평균연봉 3천500만원에 대부분 주당 12시간 이상 강의”,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24, 2013.
63) 윤정민, “사립대학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처우 현황(표)”,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1206, 2021.

화를 의미한다. 역량교육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Education 2030' 프로젝트로 진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의 개념보다는 웰빙의 개념이 등장 하면서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삶의 질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성 제시하고 잇다는 것이다. 여기에 역량교육은 더욱이 학력인구의 감소, 지식 수명의 단축, 노동시장의 인재요구상 등이 반영되어 대학과 사회와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역량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교육은 교육부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직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더욱이 역량교육은 대학의 평가와 맞물리면서 평가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측면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교육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 삶의 질을 반영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역량교육의 장점은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제고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핵심역량의 개념의 정립되지 않은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혼란이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학문의 교과기반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식위주의 교육의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에 대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의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심역량의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정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역량은 실질적인 생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애 전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에서는 교양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졸업 후에는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평생 학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생학습기관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교육에서의 역량교육 측면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배재하다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핵심역량의 함양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학습 실험과 장기적인 연구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각 대학들의 핵심역량 관련하여 다양한 구성요소와 진단도구들이 활용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량교육 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된 진단도구로 인해 인간 삶에서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역량 함양에 있어서 교양교육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교양교육이 보편적 학문으로서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고,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제 개편이 용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의 대학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통폐합 학과로 인해 교양관련 대학이 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핵심역량 함양의 교육과정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계적인 현재의 추세가 성공에서 웰빙으로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핵심역량의 함양은 삶의 질 만족을 위한 보편적 학문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함양하여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게 하여 삶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역량함양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생이 서로 상호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수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평가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갖을 수 있는 표본이 마련되어야 열심히 하는 교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학생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은 'Education 2030' 프로젝트로 나타나듯 학생만을 위한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행정가, 교수, 학생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전개될 때 역량교육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핵심역량교육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통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삶의 질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를 담당 할 수 있는 것은 교양교육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삶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여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역량교육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처럼 다양한 학문의 보편적 교육을 제공하여 참다운 인간됨을 형성하는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교양교육이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대학교육과 사회와의 직업 생태적 괴리감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핵심역량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양교육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체계적인 체질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교양교육으로서 학문의 보편성을 담아낼 수 있고, 핵심역량교육으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내희,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문화과학사, 2003.

고영준,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역량」, 『교육철학』, 제45권, 한국교육철학회, 2009, 1-26쪽.

교육부, 『대학교육혁신 지원 방안』, 2019.

김안나 · 김남희 · 김태준 · 이석재 · 정희옥, 『국가수준의 생애능력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지인, 「2018 다보스 포럼, '인간 역량의 혁명(skills revolution)' 제시」, 『브레인』, 제68집, 한국뇌과학연구원, 2018, 64-67쪽.

김지현,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의 특징과 의의」,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95-247쪽.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7, 3-27쪽.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박민정, 「대학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8, 137-197쪽.

버니 트릴링 · 찰스 파텔, 『21세기 핵심역량: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한국교육개발원 역, 학지사, 201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 BK21 핵심역량연구센터, 『역량기반교육: 새로운 교육학을 위한 서설』, 교육과학사, 2010.

소경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9, 139-164쪽.

소경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방식 탐색: 호주의 '뉴 베이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1, 133-159쪽.

소경희,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7, 1-21쪽.

소경희 · 이상은 · 박정열, 「캐나다 퀘백주 교육과정 개혁 사례 고찰: 역량기반(competency-based)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105-128쪽.

소경희, 『역량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교양교육의 과제』, 제6회 역량기반교육세미나,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2011, 35-66쪽.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5-22쪽.

오헌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총』, 제47권,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191-213쪽.

오헌석, 「역량중심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분석」,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35-56쪽.

유성상 · 이재준 · 남유진, 「역량기반 대학교육 담론의 한계 및 대안적 논의 탐색」, 『평생학습사회』, 제11권 제2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2015, 21-52쪽.

윤유진 · 이연주,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259-286쪽.

윤정일 · 김민성 · 윤순경 · 박민정,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제45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2007, 233-260쪽.

이광우 · 전체철 · 허경철 · 홍원표,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 · 중등교육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이근호,「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격」,『교육광장』, 제48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6-11쪽.
이근호 · 곽영순 · 이승미 · 최정순,『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12.
이근호 · 이광호 · 박지만 · 박민정,『핵심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이미미,「호주와 미국의 역사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분석」,『비교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155-180쪽.
이상민,「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인간연구』, 제37권, 인간학연구소, 2018, 113-134쪽.
이찬승,『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심각한 문제 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5.
장필성,「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과학기술정책』, 제26권 제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2-15쪽.
정철민 · 유재봉,「대학 교양교육의 변화」,『비교교육연구』, 제26권,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189-210쪽.
조용기 · 정병화,「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법과정책연구』, 제22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 315-355쪽.
주인중 · 진미석 · 박동열,『직업기초능력영역선정 및 성취기준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진미석,「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3, 105-127쪽.
진미석,「핵심역량은 교육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는가?」,『핵심역량교육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1-24쪽.
진미석 · 손유미 · 오석영 · 주휘정,『2012년도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K-CESA) 구축 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진미석 · 손유미 · 주휘정「대학생핵심역량진단 체제구축방안」,『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461-486쪽.

차하순,「전환기에서의 대학교양교육의 방향」,『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149-163쪽.

최길성,「역량기반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0, 464-478쪽.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정보화 글로벌 동향 자료집 2018년 종합본(10주년 기념호)』, 2018.

허준 · 윤창국,「지속가능발전교육 담론의 평생교육적 함의」,『평생교육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5, 23-44쪽.

홍영란,『OECD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홍원표 · 이근호 · 이은영,『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10.

Clearley, David, Brian Burke, Samantha Searle & Mike Walk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8", *Gartner*, 2017. (https://www.gartner.com/doc/3811368?refval=&pcp=mpe#a1230436674).

Collin, A., "Managers' competence: rhetoric, reality and research", *Personnel Review*, 18(6), 1989, pp.20-25.

Hoffmann, Bernward, *Medienpädagogik. Eine Einführung in Theorie und Praxis,* Schöningh, 2003.

Johnson, L., Adams Becker, S., Cummins, M., Estrada, V., Freeman, A., & Ludgate, H., *NMC horizon report: 2013 higher education edition,* New Media Consortium, 2013.

Klafki, Wolfgang, *Neue Studien zur Bildungstheorie und Didaktik:*

Zeitgemäße und kritisch-konstruktive Didaktik, Beltz, 1996.

McClelland, David C., "Introduction", in L. M. Spencer, L. M. and S. M. Spencer, *Competence at Work*, John Wiley & Sons Inc, 1993.

McClelland, David C., "Testing for competence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973, pp.1-14.

Meister-Eckhart-Brief, des Thüringer Kultusministeriums. Auf der Seite Thüringer Bildungssymposium, 2005.

Norris, Nigel, "The trouble with competenc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21(3), 1991, pp.331-341.

OECD, *Draft summary record: OECD education 2030 1st Informal Working Group*, EDU/ EDPC/M, 2015.

OECD, *Progress report of 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Paper presented in OECD education 2030 6th Informal Working Group, EDU/EDPC, 2017.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2005.

OECD,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2018.

Paulsen, Friedrich, "Bildung", in W. Rein, *Encyclopädisches Handbuch der Pädagogik*. 2, Beyer, 1903.

Rosovsky, Henry, *The University: An Owner's Manual*, Norton & Company, 1990.

Schwab, Klau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2016.

Westera, W., "Competences in education: a confusion of tongue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1), 2001, pp.75-88.

Zuckerman, Brian L., Abigail R. Azari, & William E. J. Doane,

Advancing technology-enhanced education: A workshop report, IDA(Institute for Defense Analyse), 2013.

Abstract

The Direction of Improving Core Competencies through Liberal Arts Education in Colleges

Cho, Yong-Ki(Daejin University)
Chung, Byung-Hwa(Daejin University)

Core competency education in Colleges means that the education of the college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ocial needs of the times or the shift of social paradigm. The education of core competencies includes various and new interdisciplinary educational approach and contents in curriculums. However, there is a negative view that the government oriented college structural reform is so emphasized without considering a variety of specific definitions of core competencies. It, nevertheless, is considered that core competency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because of the social needs of the times and only way to enhance the competences of the colleges and student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college education will be more important not pursuing simple knowledge that most of the colleges have focused but adapting to a given situation and solving the problems that we have faced in future. However, it focuses on improving individual life qualities and is considered as not competence education but interdisciplinary one after graduation of colleges. In other words, it is an education that includes lifelong and systemic education. Thus, it is said that the role of liberal arts education is important as a curriculum. The liberal arts of colleges contain academic knowledge and expertise through a variety of the

subjects. Moreover, it reflects the talents required by the time through the convergent educational content and curriculum. The liberal arts education contains the components of core competencies and creates a synergy that can raise the level of liberal arts education to the next level through core competency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divers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It could be expected to increase the status of liberal arts education and the value of core competency.

[Key Words] Core competency, Quality of life, Liberal arts, Interdisciplinary Education, Paradigm

접 수 일 : 2022년 08월 31일
심사완료 : 2022년 09월 08일
게재결정 : 2022년 09월 09일